

#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찾습니다”

## 기금사업 등 7월6일까지 공모 누구나 참여... 8월 중에 선정

장성군이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주민 복리 증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기금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다음달 6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

모전’을 연다.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다.

분야는 △사회적 취약주민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지증진사업이다.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장성군 누리집, 전자우편 및 우편, 방문 접수 등이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 결과에 따라 10~50만원 상당 지역 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상금으로 지급한다.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

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장성군은 백양사 템플스테이, 별초 대형 서비스 이용 할인권, 설이환 명장 맞춤형 목공예품 등 차별화된 답례품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오는 7월15일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찰음식의 대가’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성=유봉현 기자**

## 화순군, 벼 해충 피해 주의 당부

화순군은 최근 저온성 벼 해충인 벼물바구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벼물바구미는 월동한 후 논으로 이동하여 잎을 갉아 먹으며, 유충은 뿌리를 갉아 먹어 뿌리 활착과 생육을 저해한다.

발생 초기에는 논둑에 인접한 벼를 중심으로 분포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논 중심부로 이동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친환경 재배 논과 조기 이앙한 논에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대표적인 피해 증상은 벼 잎에 세로로 흰색 흔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앙 후 주기적인 예찰이 필요하다.

이앙 후 10~15일 적용약제로 방제하여 초기 밀도를 감소시켜야 하며 아직 이앙 전이라면 육묘 상자 처리제를 적당량 사용해야 한다.

**화순=김선종 기자**

## 나주시 ‘100세 돌봄 관리사’ 위촉 경로당 중심 치매통합돌봄

나주시가 초고령사회 난제인 치매 예방·극복을 위해 마을 경로당 중심 나주형 치매 통합돌봄서비스에 나선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치매통합돌봄서비스 추진을 위한 ‘100세 돌봄 관리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위촉된 돌봄 관리사들은 노인 돌봄, 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3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치매 관리 최전선인 100세 안심 경로당에 파견돼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치매 사각지대 발굴과 수요응답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곡성군 희망복지 기동대, 어르신 안마봉사**

곡성군이 고달면 목동 3구에서 14차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를 실시했다. 모내기철 심신이 지쳐있는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이 고달면 목동 3구에서 14차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를 실시했다. 모내기철 심신이 지쳐있는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었다.

**곡성군 제공**

이 경로당은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거주 비율이 높은 마을 경로당 180곳(농촌형172곳·도시형8곳)을 지정해 운영된다. 한 곳당 10명씩을 돌봄 대상자로 선정해 총 1800여명을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돌봄 관리사들은 매주 안심 경로당을 찾아 대상자별 맞춤형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치매 친화적 공동체 형성을 위해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주민들도 함께 참여한다.

매달 1회 치매환자 가정에도 방문해 대상자 징후와 안부를 살펴 치매 조기 예방에도 힘쓴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협약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인용)은 유니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유)와 전남도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분야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이 보유한 인력양성 관련 노하우와 자원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과 전남 실감콘텐츠 분야 기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됐다.

협약은 △유니티 기반 콘텐츠 분야 인적자원 양성 교육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UCI 자격강사(전문강사) 인력 풀 제공 및 파견 협의 △유니티프로그래밍 국제인증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유니티 기반 콘텐츠 기업의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생 취업 연계 △협약기간 동안 교육생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다.

유니티는 인터랙티브 3D콘텐츠(3D 게임·애니메이션, 가상현실 등) 개발 및 운영 플랫폼으로 전 세계 상위 모바일 게임 1000개 중 70%가 제작되고 있다.

이인용 원장은 “교육생 및 재직자들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개인의 직무역량도 키우고 나아가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도내 실감콘텐츠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 나주시, 시민의 상 5개 부문 후보자 찾는다

## 7월10일까지 접수 마감

나주시가 12만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최고 영예 상훈인 시민의 상 주인공을 찾는다.

나주시는 총 5개 부문 나주시민의 상 후보자를 오는 7월10일까지 추천(접수)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상훈 부문은 지역개발, 사회복지, 충효도, 산업경제, 교육문화이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을 심사를 통해 각 부문 1명씩 선정한다.

대상자는 나주시에 등록 기준이나 주소 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부문별 공적이 뚜렷한 시민이다.

각 부문별 공적과 관계된 기관장, 나주시 실·단·과·소장 및 읍·면·동장을 통해 추천할 수 있다. 다음달 10일까지 나주시 청 총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

로 접수하면 된다. 추천서,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 서식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받을 수 있다.

수상자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시의회 의원 3명을 비롯해 시민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민의 상 수상은 오는 10월 말 개최 예정인 ‘제29회 나주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 영광군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 원전소재지 지자체 행정협의회

영광군이 참여하는 원전소재지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행정협의회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기장군·영광군·울주군·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5개 지자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32회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능폐

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의결했다.

공동건의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김영식 국회의원과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 의원에게 전달됐다.

5개 지자체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원전 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할 것”과 “원전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지 주민 동의 절차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도 요구했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부담을 더 이상 원전소재지 지자체 주민들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특별법을 제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광=김도운 기자**

# 담양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폭 확대

담양군은 여성 농업인의 복지서비스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성농업인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

종 문화, 스포츠, 여행,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군비를 추가해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추가 지급하고 지원 연령도 현재 75세에서 80세까지 확대해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늘린

다는 계획이다. 14일까지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를 시행하고 8월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할 예정이며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할 예정이다.

농번기 가사부담 경감과 영농 집중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군비를 추가해 연 1회 지원에서 봄, 가을 각 1회로 확대 시행하며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진용 기자**

# 미래교육발전협의회 출범 담양군, 찾아오는 교육 실현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담양군 미래교육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해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장, 학부모, 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4월에 제정된 ‘담양군 미래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 설립된 미래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 17명을 위촉하고 2023년 교육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교육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군은 찾아오는 인문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4개 분야 9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장학금 신설과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이 이목을 끌었다.

협의회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 협력 △교육관련 정책 제안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원 △우수학교, 교육시설 육성 등에 대한 안건들을 협의하고 자문하는 역할로 교육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진용 기자**